

“한류 원조 김지장보살 통해 호남불교 우뚝”

현장 스님, 불교의 진리 전하고자 지장왕사 개설



현장 스님이 김지장보살이 국수를 말아먹었다는 백토를 설명하고 있다.

분의 가르침과 사상을 사회시키기 위해 법당을 마련했다”고 개원의 의미를 말했다.

개원한 포교당은 전체 건물 중 4층 88평 법당과 5층 식당과 요사공간만을 사용한다. 차후 재정여건이 사찰음식전문점과 공연장을 열 예정이다. 지장왕사 4층 입구에 들어 서면 좌측은 ‘구화산방’이, 우측은 ‘김지장기념관법당’이 마련돼 있다. 법당에는 김지장보살과 관련된 유품과 참배공간이 있어 법회 공간으로 활용되고, 구화산방은 지장신앙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돼 불교공부와 문화교육이 진행된다.

법당 통로에는 김지장보살의 일대기를 표현한 사진과 해설이 배치됐다. 끝에는 구화산 현대봉에 남아 있는 김지장보살 발자국을 본뜬 석조물인 ‘고대경배’와 중국의 목조 탕화가 놓여있다.

법당에는 신라의 삼살개로 알려진 ‘청사자’를 좌대로 앉은 김지장보살이 주불로 모셔져있다. 머리에는 오물보관다섯 분의 여래를 모신 보관을 쓰고 육환장과 보주를 들고 있는 상이다. 법당의 주변으로 동판으로 양각되어 금으로 도금된 <지장보살보원경>, 김지장보살이 국수를 빚어 먹었다는 ‘백토’, <무량수경> 사경본, 중국황제로부터 받았다는 지장이성금인(地藏利成金印) 사본 등 많은 관련 유품이 전시돼 있다.

법당 옆에 마련된 구화산방은 사찰의 다목적 공간으로 불교강좌, 문화강좌 등이 열리는 공간이다.

현장 스님은 “앞으로 김지장보살의 사상을 선양하고 알리는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현세가 지옥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웰빙(Well-being), 웰다이(Well-Dial)의 모범을 보여준 김지장보살의 삶을 통해, 내세를 잘 준비하고, 매워서 사람들이 불교적 죽음과 가치관을 깨우침을 얻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장보살을 통해 일반인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현장 스님은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교류의 시대이다. 이를 선

구적으로 실천한 역사인들이 많다.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불교는 백제 성왕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성왕을 통해 많은 문물을 전래받아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고, 오늘날 세계적 문화국가로 성장하게 된 씨앗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신라불교가 중국에 진출하여 광범위한 계층을 교화하고 감동을 줬다. 그분이 김지장보살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4대 불교성지가 있다. 관음·문수·보현보살은 경전에 나온 보살이지만 김지장보살은 역사적 실재인물이다.

현장 스님은 “김지장 보살은 역사적 실재인물로 구화산만이 갖는 차별성과 특징이 있다”라며 “김지장 보살은 한류의 원조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중국에는 김지장보살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철저히 소멸되고 차단됐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조선시대 역말로 인해 불교관련 서적이 많이 없어진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스님은 지장왕사를 통한 구체적 방향점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지장본신의 양성이다. 현장 스님은 “최근 영화 ‘아바타’가 유행하듯 김교각보살 또한 지장보살의 아바타 화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지장보살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 분”이라며 “김교각보살은 지금도 육신불로 남아 깨달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김교각보살의 정신을 배워 지장보살의 아바타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장보살이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돕는 것이 지장본신의 양성이자”라고 설명했다.

둘째, 호남불교의 중흥이다.

현장 스님은 “호남불교의 구체적 대안으로 ‘지장불교문화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장불교문화전당’은 한국민족문화, 불교문화, 아시아 문화가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문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다. 스님은 “불교가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머물지 않고, 1600년의



김지장보살 기념관 법당 모습.



김지장 보살의 발자국인 고대경배와 목조 탕화.

문화적 전통을 다양하게 개발해 불교가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한국은 대승불교를 내세우지만 대승행이 가장 부족하다”며 “대승행원을 구체적으로 배

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김지장보살의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김교각보살 선양사업을 전국적인 신앙운동으로 확산시켜 김지장보살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스님은 지장왕사 개원과 함께 ‘지장1000일기도’를 시작했다. 또, ‘지장불교문화전당’ 건립을 서원해 ‘100만인 <지장경> 사경’도 봉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화산빌리지’로 이름 지어진 빌딩에 위치한 ‘지장왕사’는 몇 해 전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한 광주시청이 있었던 자리이다. 또한 1960년대까지 경향방죽과 태봉산왕실의 태를 묻는 곳이 존재했던 곳이다.

보성 대원사 前 주지 현장스님(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광주시청이었던 5층 건물을 구입해 김교각지장보살(이하 김지장보살)을 선양하는 포교당을 개설했다. 이곳이 지장왕사이다.

현장 스님은 이미 광주전남지역에서 아시아문화사업을 지속해온 문화전문가이다. 보성 대원사 티벳

박물관을 시작으로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해 인도박물관을 운영했다. 또한 자비신행회 회주와 한꽃 외국인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호스피스사업 등 광주지역 최초의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을 일궈온 문화 일꾼이다.

지장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월 19일 개원했다.

현장 스님은 “대원사라는 산사의 사찰에 있다가 도심포교의 뜻을 갖게 됐다. 구체적 포교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친 김교각 스님을 한국에 알리고 그

장보고의 후예들 완도군 연합신도회 창립

완도지역 불교신자들의 중심점이 될 완도군불교사암연합신도회(회장 우성자)가 2월 16일 완도군 민회관에서 창립했다.

완도군불교사암연합신도회 창립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신홍사 주지 법일 스님,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 비롯해 우성자 신도회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창립법회는 난타그룹 얼썬와 트로트신동으로 알려진 이기흥 아

린이 등의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등 불교의식에 이어 신임 우성자 회장의 인사말, 법일 스님·김종식 군수의 축사, 시몽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시몽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완도는 장보고 대사의 고향이며, 세계무역을 펼쳤던 뜻 깊은 고장”이라며 “장보고 대사를 통해 세계로 펼쳐졌던 불교를 오늘에 되살려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우성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완도지역 불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무실을 만들겠다”며 “향후 완도불교가 하나로 화합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완도군불교사암연합신도회는 우성자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인, 재무, 교육 등 8명의 임원진을 꾸려 완도지역 불자들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음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 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